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이면 누구나 발생 지역 무관 각종 재난 · 사고 피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전주시는 2025년 새해에도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살인과 폭행,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 및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발생 시 1500만 원을 보상해주는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로 제한하던 개물림사고 진료비도 개물림 및 개부딪힘 사고로 인해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이 확대됐다.

전주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제도

반대로,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이 없던 보장항목(6종)과 강력범죄상해 보장항목 추가로 인한 중복항목(4종)이 제외되고, 일부 보장항목의 보장 금액이 상·하향 조정됐다.

이는 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범죄 상해 △화상수술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이다.

이러한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2025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이며, 청구 서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는 보장한도와 보장항목을 조정해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일주일동안 관할 5개 센터의 119구급대원과 펌뷸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 지도 · 점검

전주완산소방서, 5개 119안전센터 순회 점검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일주일동안 관할 5개 센터의 119구급대원과 펌뷸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고품질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응급처치 숙련도 점검 △겨울철 응급환자 증가에 따른 이송대책 점검 △품질관리 및 Pre-KTAS(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감염방지 및 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활동일지 작성의 적정성 검토 △안전사고 사례 교육 및 구급대원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또한, 펌뷸런스 대원들의 구급 업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응급처치 장비 확인 등 펌뷸런스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앰뷸런스)의 합성어로 재난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차량을 말하며, 전주완산소방서에서는 5개의 안전센터에 모두 6대를 운영중이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곧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최상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삼천주공3 · 효자주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

전주시는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삼천주공3 재건축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삼천주공3 재건축은 조합원 462명에 602세대, 효자주공 재건축은 조합원 923명에 2,053세대 건립 예정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번에 인가 처리된 삼천주공3·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후 지난해 12월과 이달 각각 최종 인가 처리됐다.

이에 해당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일련 정비사업의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앞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 입주자모집 등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예정 구역인 하가 재개발·세경 재건축·오성대우 재건축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검증 절차와 속도감 있는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통합심의(건축·환경·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는 내용의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와 동시에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으며, 관리처분계획 절차 및 기준, 분양 자격, 정비사업비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만큼 조합원들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절차로는 이주·철거 및 착공이 이루어지며, 조합원들의 거주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옥기 기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최선'

전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이용자 모집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도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7일까지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할 신규 이용자 2400명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으로, 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면 시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모집 대상 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13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를 원칙으로, 서비스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이 다르게 고려돼 모집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모집 인원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오는 2월 말까지 적합 여부를 통지하게 되며, 최종 대상자에게는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소득구간(등급)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새소식란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 생활복지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한밤 덕유산 설천봉 팔각정서 불… "전기적 요인 추정"

경찰 · 소방 합동 감식… 인명 피해 없지만 상제루 정자 1채 모두 소실

2일 오전 0시 23분경 무주군 덕유산 설천봉에 위치한 팔각정인 '상제루'에서 불이 나 1시간5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제루 정자 1채(125㎡)와 내부 등산용품, 기념품 등이 모두 소실됐다.

화재가 발생한 상제루는 설천봉 꼭대기에 위치한 등산객 쉼터와 기념품 판매소를 겸하는 곳이다.

발화 지점이 해발 1,520m의 높은 고도에 위치한 만큼 일반적인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소방대원들은 스노모빌을 타고 화재 현장으로 가 인공눈 제설기 등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부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식 결과 해당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